중립적 처음

(요9:1~12)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0.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중립적 처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중립적 처음’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과 관계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UCLA 의대교수께서 과정을 마치고 일선에서 진료행위를 하러 나가야 되는 의대생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는 매독에 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린 부부가 있었다.
이 부부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은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고,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병을 안고 태어나 일찍 죽었고, 셋째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다시 다섯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현지에 나가서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 자네들의 생각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이에 모든 학생들이 부모를 위해서도 아기를 위해서도 당연히 유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했더니,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바로 베토벤이 이런 병을 앓고 있던 부모 밑에서 다섯 번째로 태어났다'

이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부모님들의 잘못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제가 독일에서 함께 공부하던 선배목사님의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여성스럽고 얌전한 사모님이신데, 특별히 그분에게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력이었는데 안경을 벗으면 거의 시력이 없는 그런 시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셔야 겨우 거동을 조심스럽게 할 정도의 시력이었어요.
대체 어떡하다 그러셨느냐고 그랬더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게 아니고, 당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아마 의사선생님께 들은 말씀인가 봐요) 태아의 눈이 형성되는 시점이 있답니다, 심장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기관이 생겨나갈 때 눈이 생겨나는 그 시점에 부모님에게 집안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충격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만 시각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었던 문제가 자식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한 독일 학생 중에 팔이 없고 손이

어깨에 바로 붙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6,70년대인가 독일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약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임상조사도 다 거친 약이었는데, 그 약을 먹은 임산부들이 낳은 아이들이 팔이 없이 손이 어깨에 붙는 아기들이 전국 곳곳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이에요, 하여간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죄 적인 잘못이든 실수든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 때문이든지, 어쨌든 부모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행동을 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일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확언할 수 있는 이 경우의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유를 다 부인하십니다.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부모의 잘못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그 아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를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의 잘못이라고 할 경우에, 이 맹인으로 태어난 당사자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지고 물어볼 판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 참으로 엉뚱한 대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쭉 같은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는데, 21절에 보면 부모들이 그럽니다, '그가 장성하니 그에게 가서 물어라'
장성하다는 얘기는 13살 이후이지만, 학자들은 이 장성하다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문제를 대처해 가는 당사자의 태도나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적어도 스무 살은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할 때, '20년 남짓 세월이 지난 뒤 네가 예수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시점에서 너의 눈을 낫게 해주므로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너는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나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맹인으로 살아라! 그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얘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아기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20년이 넘도록 걸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 당시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거렁뱅이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20년을 넘게 고통 속에 이 사람을 잠가둡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중립적 처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지금 당사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을,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중립적 처음'이라는 얘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부모님에게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죄적인 잘못이든 실수든지 불가항력적인 일이든지 간에.
그런데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맹인으로 살고 있는 고착된 결과, 유지되고 있는 결과, 분명히 원인은 부모님 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원인을 다 무효화시켜 버리십니다.

아! 여러분, 이거 오늘 굉장한 말씀이에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라고 하는 이 결과로부터 잘못된 과거의 붙어있는 원인을 다 떼 내십니다.
잘못된 원인, 죄로 인한 원인, 실수의 원인을 다 제거해버리시니까 지금의 맹인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중립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잘못으로부터 중립적인, 죄로부터 중립적인, 불가항력적인 불행으로부터 중립적인 상태가 되

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활동의 장소가 돼버립니다.
중립적인 처음은 주님을 만나서 내게 주어질 때 언제나 하나님의 활동의 장소가 되는 일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꼭 신체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걸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삶의 문제에서도 중립적인 처음이 적용된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가 욕심을 과하게 부렸습니다.
확장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사업이 망했다고 하는 이 결과가 주어졌고, 이 결과는 분명히 내가 욕심을 내서 사업을 확장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망한 상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사업이 망했다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중립적 처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중립적이라는 말은 분명히 나의 잘못이 개입되어 있는 열매요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이라는 것이 제거돼버린다는 얘깁니다, 나의 죄라는 것이 제거돼버리고 나의 욕심 값이 제거돼버리는 중립적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처음이 돼버립니다.
나의 잘못과 욕심으로 인한 과정이 지속되어서 나타난 결과요 끝이요 마무리가 아니라, 처음이 돼버립니다.
나의 죄의 값, 나의 실수의 값, 나의 욕심을 부린 값이 제거돼버린 중립적 처음이 되고, 하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무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아~! 신기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실 때 좀 비위생적이게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침으로 흙을 이기고 그걸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사람과 관계되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뭡니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신 겁니다, 흙으로.
바로 그 일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맹인을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고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는 행동을 하셨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되어 행하신 활동의 맨 처음의 순간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신다는 얘깁니다.
맨 처음의 순간, 중립적 처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 값과 실수 값과 모든 욕심을 부린 값과 모든 나의 잘못의 값으로부터 중립적인,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중립적 처음이 돼버려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무대의 처음의 순간이 되어버린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상태가 나의 죄 값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나의 죄 값이 제거돼버린 중립적 상태가 되면서 그곳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태초의 처음 장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만나는 나의 모든 현재의 상태는 나의 잘잘못으로부터 중립의 상태가 됩니다.
모든 나의 과거의 잘못의 열매가 지금인데, 또 잘된 상태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과거에 무얼 잘했기 때문에 생긴 상태가 지금인데,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성공했어도 마찬가지로, 모든 원인을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중립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잘됐어도 세상기준으로 잘되는 것은 계속 진전하다보면 패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다 무효화시켜서 중립적인 상태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나의 잘잘못의 값을 다 흡수해버리십니다.
지금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이전까지의 모든 나에게서 나온 실수와 죄, 악, 불가항력적인 불행, 그 모든 값을 다 흡수해버리십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사건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라!' 왜 가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다, 너의 과거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상황은 완전히 중립

적 처음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감옥에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자식을 잘 기른다고 해보다가 나 때문에 자식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술을 마셨고, 과도하게 담배를 피웠고, 과도하게 식탐을 부리다가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까?

모든 상황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중립적 처음으로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하나님 활동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제대로 만납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우선시하고 동일시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오직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특별히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리느라고…

십자가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 쏟느라고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실패의 상황, 잘못의 결과, 죄악의 결실들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그 모든 것이 내가 겪어야 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을 다 흡수해버리신 것이에요.

그런 아무런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주님께서 다 흡수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의 상태를 죄의 결과가 아니라 완전히 중립적인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고, 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본문의 맹인의 경우에는 맹인의 상태든지, 감옥에 있는 상태든지,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상태든지, 질병으로 온 몸이 장악된 상태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무대가 되고, 그것이 중립적 처음이 될 때, 하나님에게 시력이 없다는 것은 방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하시려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현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계십니까?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일 수도 있고, 휠체

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휠체어에 앉아있는 내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내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도 휠체어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맹인이라고 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도 맹인이 아닙니다.
내가 빚더미 위에 앉아있다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도 역시 빚더미 위에 앉아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조물주이십니다.
물주 중의 물주인 조물주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라는 사실을 요한이 기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분명히 부모에게 잘못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불가항력적인 불행이 있었고, 뭔가 이상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잘못 됨을 주님께서 흡수해버리시고, 맹인 된 이 사람의 상태를 중립적 처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요 하나님의 개입의 장으로 만드심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시작된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다는 얘기고, 날마다 중립적 처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날로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우선시하고 동일시할 뿐입니다.
내가 죽었다 생각하며 내 눈앞에 닥치는 모든 일 앞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죽은 자임을 인정할 뿐인데, 중립적 처음이 날마다 도래하고, 날마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활동무대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적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